헤어 디자인의 구성원리 및 원래스 컷트에 대한 고찰

충남도립청양대학 피부미용과 류 지 원
충남도립청양대학 피부미용과 소 영 진

Ⅰ. 서론
디자인(Design)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지금까지는 도안이라든가 모양이라는 평범적인 의미에서 쓰여져 왔다. 디자인이라는 말을 넓은 뜻으로 해석하면 설계 도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디자인 한다’ 하는 것은 누구나 갖고있는 계획이고, 일상적으로 사용해 보고있는 인간 본래의 행동이다. 어느 확실한 이유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경우 우리들은 그 목적에 대해서 무엇인가의 계획을 한다. 이 계획이 바로 ‘디자인’ 이다. 그러므로 헤어스타일(Hair Style)을 완성하기 위해 계획하는 것이 바로 ‘헤어 디자인’ 이다.

“머리를 자른다” 라는 것을 옛날 여성들은 생각조차 못했으나, 현대의 두발형(頭髮形)에서는 일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헤어커팅(Hair cutting)은 헤어스타일을 만들기 위한 기초를 이루는 기술이다. 파마넷 헤이빙(permanent waviing), 헤어세팅(hair setting)에 의해서 형성되는 헤어스타일은 어느 것이나 컷트 기술에 의해서 사전에 형(style)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컷트가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세트(set)나 파마넷(permanent)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아름다운
헤어 스타일을 나타낼 수 없다. 또 헤어 커탕을 헤어 셰이핑(hair shaping)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머리모양을 만들다는 것이다.

특히 헤어 커탕 중에서도 원FontSize=12평스 커탕(one length cut)는 머리에 단차를 두지 않고 동일선상에서 머리결의 폭의 방향, 각도없이 나란히 커탕해 나가는 기술이다. 이 커탕은 무엇보다도 자른 자리의 정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머리카락의 길기, 밀도, 머리결의 성격을 계산한 다음 곧게 빗질하여 자연적인 머리결의 흐름에 따라 판넬(Panel)을 바로 잡아 바로 아래에서 적심 커탕을 한다.

본 연구는 헤어 디자인의 기본적인 구성들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원FontSize=12평스 커탕 (one length cut)의 정확한 기법을 고찰하고, 헤어 디자이너를 지망하는 학생과 임상에서 근무하는 헤어 디자이너에게 좀 더 자신 있는 커탕을 구사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 헤어 디자인 구성의 기본원리

1. 헤어 디자인의 주요 요소

헤어 디자인은 주로 시각미술 중에 포함된다. 그런데에 적절한 디자인 감각을 기르기 위해 관련을 갖고 있는 디자인요소에 대해서 개발적 감각과 구성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헤어 디자인 구성요소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도해(圖解)를 살펴보고 다른 방법으로써는 알지 못하는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도해(圖解)를 사용하는 요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1) 점

점은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 시각적으로 점을 인정하기 위하여 헤어스타일 구성에서 하나의 점은 주의력을 집중하는 장소로 이해된다. 다시 한 점이 가해져면 한 점에 집중되었던 주의력은 분산되어 약하게 되나 점과 점 사이에는 신리적 정력 또는 긴장을 느낄는 이 두개의 점이 같은 크기라면 주의력은 양쪽에 분산되고 어느 쪽이가 큰 경우에는 주의력은 우선 큰 점에 홀려들어 다음 점으로 옮겨진다. 이 작용을 '시각의 이동'이라고 한다.

헤어스타일에서는 테마를 클로즈-업 시키고자 할 때는 하나의 점이 유효하고, 같은 크기의 두 점은 긴장을 양분하고 대소의 두점은 부드러운 시선의 호흡을 만든다. 하지만 여러 개의 점을 중구난방으로 만만다면 포인트가 없는 헤어스타일을 만들기 쉽다.